

## 가해염려를 동반한 사회공포증과 분노관련 변인들 및 개인주의-집단주의 성향과의 관계\*

김 은 정<sup>†</sup>

아주대학교 심리학과

조 용 래

한림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는 우리나라와 일본에서 주로 관찰되어 일종의 문화특수증후군으로 알려진 가해염려 사회공포증과 분노관련 변인들 및 개인주의-집단주의 성향과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SIAS)과 사회공포증(SPS)의 수준의 영향을 통제한 후 가해염려 사회공포증상에 대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분노억제, 분노를 잘 통제하지 못함, 분노표출 태도 중 타인의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수평적 개인주의가 적음이 가해염려 사회공포증상의 변량을 설명하였다. 반면, SIAS에 대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분노억제, 분노를 잘 통제함, 수평적 개인주의가 많음이 SIAS의 변량을 설명하였다. SPS에 대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분노관련 변인과 개인주의-집단주의 성향 중 어느 것도 SPS의 변량을 설명하지 못하였다. 이 결과들은 분노와 개인주의 성향이 가해염려 사회공포증상을 설명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끝으로, 본 연구의 의의 및 제한점과 후속 연구의 방향에 관해 논의하였다.

주요어 : 가해염려 사회공포증, 분노관련 변인, 수평적 및 수직적 개인주의-집단주의 성향

\* 본 논문은 2006학년도 아주대학교의 교내연구비지원사업 연구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sup>†</sup>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김은정 / 아주대학교 심리학과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산 5  
Fax : 031-219-2195 / E-mail : kej@ajou.ac.kr

우리나라와 일본에서 주로 관찰되는 문화특수증후군(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1994)으로 알려져 있는 가해염려를 동반한 사회공포증, 일명 대인공포(Tacin Kongpo) 또는 대인공포증은 개인이 자신의 외모, 체취, 얼굴표정, 또는 시선으로 인해 상대방을 불편하게 하거나 그들에게 불쾌감을 줄까봐 심한 두려움을 보이는 것을 말한다.

가해염려 사회공포증에 대한 연구는 이런 유형이 나타나는 유교문화권인 한국과 일본에서 주로 이루어져 왔다. 이시형, 신영철 및 오강섭(1994)은 지난 10년간 강북삼성병원 신경정신과를 내원한 838명의 사회공포증 환자를 대상으로 사회공포증의 세 하위 유형별로 임상양상 및 치료 결과들을 비교 분석하였다. 이시형, 이성희 및 김갑중(1986)은 문화적 배경 차이가 있기 때문에 동양권의 사회공포증을 서양권의 것과 다르게 해석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임상 관찰 및 일본학자들의 의견을 참조하여 새로운 진단기준을 제시하였다. 이시형 등(1986)은 사회공포증 환자를 DSM-III 및 DSM-III-R 진단기준으로 대체로 적용이 가능한 경우를 단순형, 자신의 증상으로 인해 남에게 피해를 주거나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 가해염려형, 그보다 심한 경우를 경계형으로 나누어 임상에 적용하였다. 전체 내원 환자들 중 단순형이 54.2%로 가장 많았고, 가해염려형이 32.2%, 경계형이 13.6%로 밝혀졌다. 이 환자들의 병원 내원 연령은 20대가 과반수를 넘을 정도로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평균적으로 단순형이 다른 두 하위유형에 비해 유의미하게 많았다. 증상 초발 연령은 평균 19.5세(표준편차 5.9세)였고, 전체적으로 10대 후반이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경계형의 발병시기가 가장 빨랐고, 다음으로 가해염려형,

단순형순이었다.

최근 들어서는 서울지역에 거주하는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및 성인 1,087명을 대상으로 가해염려를 보이는 사람들의 비율 등을 조사한 결과(오강섭, 허묘연, 이시형, 1999)가 보고되었다. 이 조사연구에 의하면, 사회불안 증상으로 인해 타인에게 피해를 준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비율은 고교생 14.8%, 중학생 13.0%, 대학생 8.09%, 그리고 성인 6.7%로 나와서 중고생에서 성인으로 갈수록 그 비율이 점차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에서는 Morita(1928)가 Taijin Kyofusho (TKS)라는 일본 특유의 사회공포증 양상에 대해 기술한 이래로 가해염려 사회공포증에 대한 경험적 연구들이 이루어져 왔다. Takahashi (1989)는 TKS를 얼굴이 붉어짐, 불쾌한 냄새를 풍김, 부적절하게 쳐다보는 것, 부적절한 얼굴 표정을 짓는 것, 혹은 신체적 기형 등으로 인해 다른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나타나는, 수치심에 대한 강박관념이라고 정의하였다. 그에 따르면, 이런 증상을 가진 대부분의 사람들이 시간이 경과하면서 변화하기는 하지만, 주로 한가지의 두려움을 경험하였다. 임상장면에서는 유병율을 살펴보면, 남자와 여자의 비율이 3대 2로 남자가 우세하였다.

앞서 기술했듯이, 동아시아 연구자들은 동양권에서는 DSM-IV(1994)에서 정의된 사회공포증 이외에 남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는 가해의식을 동반한 사회공포증의 하위유형이 있음을 지적하였다. 가해염려 사회공포증은 DSM-IV(1994)에서 정의된 일반적인 사회공포증과 몇 가지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다(조용래, 김은정, 2005; Kleinknecht, Dinnel, Kleinknecht, Hiruma, & Harada, 1997). 두 사회공포증 모두

사회적 상호작용이나 수행상황에 대해 두려움과 회피를 보이며, 특히 자신의 외모나 행동이 타인(들)으로부터 부적절하다는 평가를 받을까봐 두려워하며 그러한 평가가 예상되는 사회적 상황을 회피한다. 그렇지만, 두 유형의 사회공포증 간에는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다. 가해염려 사회공포증은 이를 경험하는 사람이 타인을 불쾌하게 하거나 당황하게 할까봐(they will offend or embarrass others) 두려워하는 것인데 비해, 일반적인 사회공포증은 당사자 자신이 창피를 당하거나 무안을 당할까봐(they will offend themselves) 두려워하는 특징을 보인다.

Kleinknecht, Dinnel, Tanouye-Wilson 및 Lonner (1994)은 가해염려 사회공포증을 측정하는 Tajjin Kyofusho Scale(TKS; Kleinknecht, Dinnel, Kleinknecht, Hiruma, & Harada, 1997)을 개발하였다. 이 척도는 이전 판(Kleinknecht, Dinnel, Tanouye-Wilson, & Lonner, 1994)을 개정하여 만들어졌으며, 31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일본의 가해염려 사회공포증 환자와 비환자들을 아주 잘 구별하는 것으로 밝혀진 문항들과, 가해염려 사회공포증의 정의적 증상들의 묘사와 일치한다고 판단된 문항들이 포함되어 있다. 미국과 일본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이 검사는 두 집단 모두에서 내적 일치도가 우수하였으며, 기존의 사회불안 척도들인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 척도(Social Interaction Anxiety Scale, SIAS) 및 사회적 공포증상 척도(Social Phobia Scale, SPS)와 높은 상관을 보였다. 아울러, 원판 TKS의 대부분의 문항들은 SIAS 및 SPS 문항들과는 각각 구별되게 다른 요인에 높게 부하된 것으로 밝혀졌다(Kleinknecht et al., 1997). 한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비슷한 결과를 얻었다(조용래, 김은정,

2005).

반면, DSM-IV(1994)에서 정의된 사회공포증은 일반화된 하위유형과 비일반화된 하위유형으로 나누어진다. 일반화된 하위유형은 ‘대부분의 상황에서 두려움을 경험하는 경우’이고, 비일반화된 유형은 ‘한 가지 수행 상황을 두려워하는 것뿐 아니라, 대부분은 아니지만 몇 가지 사회적 상황을 두려워하는 경우’이다(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1994). 그러나 ‘대부분’이라는 기준이 매우 모호하므로 이를 토대로 하위유형을 구분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Turner, Beidel, & Townsley, 1992). 따라서 일반적으로, 사회공포증의 하위유형은 불안을 유발하는 상황의 범위가 아니라 상황의 특징을 기준으로 구분된다.

Turner와 Beidel 및 Townsley(1992)는 사회공포증의 비일반화된 하위유형을 수행 상황에서만 공포 반응을 보이는 집단으로, 일반화된 하위유형을 사회적 상호작용 상황에 대해서도 공포 반응을 보이는 집단으로 정의하고 이들 간의 범주를 확인하였다. 이를 기초로 하여 Mattick과 Clarke(1998)는 사회공포증의 하위유형을 구분하기 위한 도구로서 사회적 공포 척도(Social Phobia Scale, SPS)와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 척도(Social Interaction Anxiety Scale, SIAS)를 개발하고 타당화하였다. 전자는 발표와 같은 사회적 수행 상황에서의 불안을 반영하는 20개 문항이고, 후자는 타인과의 대화와 같은 사회적 상호작용에 대한 불안을 측정하는 19개 문항이었다(김향숙, 2001).

많은 연구자들이 동아시아 문화권에서 가해염려 사회공포증이 특징적인 하위유형이라고 주장함에도 불구하고 가해염려 사회공포증의 특성을 밝힌 연구는 매우 부족하다. 이시형과 그의 동료들(이시형, 김형태, 김성희, 1987; 이

시형, 신영철, 오강섭, 1994; 이시형, 오강섭, 이성희, 1991; 이시형, 정광설, 1984)은 가해의식을 동반한 사회공포증이 동양의 유교문화를 배경으로 한 눈치문화, 화합과 체면의식, 배려의식, 타인중심적인 사고 등에 크게 영향을 받는 문화증후군이라고 지적하면서 가해염려 사회공포증을 잘 이해하려면 동양문화권의 특수성을 인식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역설하였다.

가해염려 사회공포증의 문화적 특성으로 지금까지 연구된 유일한 특성은 개인주의-집단주의 자기이다. 사회공포증의 문화적 차이는 부분적으로 구성원들이 사회적 위협의 대상으로서 자기를 정의하는 방식으로부터 비롯될 수 있다(Kirmayer, 1991; Takahashi, 1989). 유교 문화에 영향을 많이 받은 동아시아 지역에서 자기는 가족적 집단 또는 사회적 집단의 일원이며, 그 집단이 확장된 것이다. 성취나 사회적 이탈은 무엇보다도 그 집단을 직접적으로 반영한다. 개인주의나 자기과시나 집단으로부터 이탈은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이런 문화권에선, “집단주의”(Kim, Triandis, Kagistticipash, Choi, & Yoon, 1994; Markus & Kitayama, 1991)라고 불리는 자기개념이 그 사람이 속한 집단에 상호의존적이다. 각 개인은 전체의 일원으로서 더 큰 집단과 관련해서만 자기개념이 정의된다.

반면, 미국과 같은 서구 사회에서는 자기가 좀 더 독립적이거나 개인적으로 정의되어진다. 개인주의가 장려되며 다수로부터 뛰어난 것으로 인해 자기가 칭찬을 받는다. 자기개념은 독특하고 개인적인 특징과 능력으로 정의된다. 자기개념은 타인들로부터 독립을 성취함으로써 발달되며 자율적이고 경계가 있는 개체이다(Markus & Kitayama, 1991; Singelis, 1994). 항

상 다수의 의견을 따라가는 사람은 “자기감”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어떤 사람이 잘못을 했다면, 그것은 오로지 자기자신의 책임이다. 따라서, 부끄러움이나 수치심도 주로 개인에게 집중된다(Kleinknecht et al., 1997).

Kleinknecht 등(1997)은 이런 개인주의-집단주의 자기개념과 사회공포증의 두 유형간의 관계를 경험적으로 검증하였다. 일본의 가해염려 사회공포증상은 집단주의 자기와 관련되어 있는 반면, 서구의 사회공포증상은 개인주의 자기와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으나, 그 가설은 지지되지 않았다. 미국과 일본 표본에서 모두 개인주의 자기개념은 모든 사회불안의 측정치와 부적 상관이 있었다. 즉 좀 더 개인주의적인 자기개념은 사회공포증을 덜 느끼는 것과 상관되어 있었다. 반면, 집단적인 자기개념의 경우, 문화권에 따라 차별적인 양상을 보였다. 즉, 미국 표본에서는 집단주의 자기개념은 사회공포증의 세 척도와 정적 상관을 보였지만, 일본 표본에서는 집단주의 자기개념은 사회공포의 세 척도 중 어느 것과도 상관이 없었다. 또한 문화적 요인이 사회불안의 형태에 영향을 주는지를 알기 위해, 개인주의 자기, 집단주의 자기, 당황스러움, SPS, SIAS를 예언변인으로 하여 가해염려 사회공포증에 대해 stepwise 방법을 사용하여 중다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미국 표본의 경우, SPS와 SIAS만이 가해염려 사회공포증의 변량을 설명하였다. 반면, 일본 표본의 경우 SPS와 SIAS외에도, 개인주의 자기가 추가적으로 가해염려 사회공포증의 변량을 설명하였다. 연구자들은 이런 결과가 집단주의 자기와 개인주의 자기를 측정하는 도구가 신뢰롭지 않아서 나왔을 수 있다고 제안하였다. 따라서

좀 더 신뢰로운 개인주의-집단주의를 측정하는 도구를 이용하여 이런 문화적 요인과 사회공포증의 유형간의 관계를 규명해 볼 필요가 있다.

가해염려 사회공포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한 요인들로 개인주의-집단주의 자기 외에, 분노를 고려해 볼 수 있다. 분노의 경험과 표현과 관련해서 DSM-IV(1994)에 정의하는 사회공포증의 경우 연구마다 다소 상반된 연구 결과를 보이고 있다. Fitzgibbons, Franklin, Watlington 및 Foa(1997)의 연구에서, 사회불안을 가진 사람들은 광범위한 상황들에 걸쳐 분노를 더 많이 경험하고 특별한 도발 자극이 없는 데도 분노를 더 많이 표현하는 경향이 있었다. Kachin, Neaman 및 Pincus(2001)는 사회불안을 가진 사람들에게 대인관계 문제 질문지(Horowitz, Rosenbergh, Bear, Ureno, & Villansenor, 1988)를 실시한 다음, 군집분석을 하였다. 그 결과, 두개의 집단이 나타났는데, 하나의 집단은 비주장성, 착취당할 수 있음, 과잉보호의 문제를 가진 집단이고, 다른 집단은 분노, 적개심, 불신의 문제를 가진 집단이었다.

한편, 사회공포증을 가진 사람의 경우, 분노의 경험과 표현은 독특한 딜레마를 일으킨다. 부정적 평가를 지각함으로써 분노가 생겨나지만(Alden & Wallace, 1991; Leary et al, 1988), 만약 표현할 경우 부정적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증가된다. 그러므로, 분노는 불안을 일으키고, 불안을 감소시키기 위해 억제된다. 따라서 분노의 억제는 사회공포증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적인 분노표현 양식일 수 있다. 사회공포증을 가진 사람들의 특질 분노는 부정적 평가의 두려움과 관련이 있었고(Meier et al., 1995), 사회공포증 가진 사람들은 통제 집단에 비해 분

노를 더 억제하였다(Fitzgibbons et al, 1997).

Erwin, Heimberg, Schneier 및 Liebowitz(2003)은 사회불안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분노 경험과 분노표현 양식을 검증하였다. 연구 결과, 사회불안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통제 집단에 비해 더 높은 수준의 분노를 경험하고 분노를 억제하는 경향이 많았다. 상태 분노, 특질 분노, 분노 억제가 높은 수준의 사회불안과 관련이 있었다. 또한 특질 분노의 수준은 집단 인지행동 치료를 그만두는 것과 상관이 있었다. 12회기로 구성된 집단 인지행동 치료를 마친 환자들 중에서, 더 강렬한 분노를 경험하고 분노를 더 많이 억제하는 경향성이 치료후의 높은 수준의 사회불안과 우울 증상을 유의미하게 예측하였다. 또한 치료를 마친 환자들은 특질 불안과 분노 억제에서 유의미한 향상이 있었다.

가해염려 사회공포증상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른 사람들을 화나게 하지 않았나” 등과 같이 분노감정과 관련된 염려가 개입되어 있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가해염려 사회공포증이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불편하게 만드는 것을 염려하므로, 직접적인 분노표출을 지나치게 억제할 가능성이 많다. 따라서 지나친 분노의 억제가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화를 내지 않을까하는 투사로서 가해염려 사회공포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따라서 분노의 경험 및 표현 방식과 가해염려 사회공포증과의 관계를 검토해 보는 것은 사회공포증상의 본질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연구문제라 하겠다. 또한 분노표출에 대해 가지고 있는 개인의 태도가 분노의 표현방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서수균, 이훈진, 권석만, 2004). 본 연구에서는 분

노의 경험과 표현방식 뿐 아니라, 분노표출에 대한 태도와 가해염려 사회공포증과의 관계도 함께 살펴볼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여러 연구자들이 가해염려 사회공포증상은 문화특정적인 장애라는데 동의하고 있으나, 가해염려 사회공포증의 특성과 이것이 DSM-IV(1994)에 정의하는 사회공포증과 어떻게 다른가를 밝힌 연구는 매우 부족하고, 지금까지 수행된 대부분의 연구들이 기술적인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가해염려 사회공포증의 특성을 더 밝히기 위해, 가해염려 사회공포증과 분노관련 변인들 및 개인주의-집단주의 성향과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가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았다. 첫째, 가해염려 사회공포증상은 특성 분노, 분노 억제, 분노 통제 및 분노표출에 대한 부정적 태도와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일 것이다. 둘째, 가해염려 사회공포증은 개인주의 성향과는 부적 상관관계를, 집단주의 성향과는 정적 상관관계를 보일 것이다.

## 방 법

### 연구 대상

지방 소재 대학교에서 심리학 관련 과목을 수강하고 있는 대학생들 중 본 연구의 취지에 동의한 310명(남 154명, 여 156명)이 연구에 참가하였다. 전체 참가자들의 평균 연령은 22.41세(표준편차 2.34세)였다.

### 측정도구

### 한국판 가해염려 사회공포증 척도(Taijin Kyofusho Scale, TKS)

이 척도는 가해염려 사회공포증상의 정도를 측정하는 자기 보고형 검사로 알려진 Taijin Kyofusho Scale(TKS; Kleinknecht, Dinnel, Kleinknecht, Hiruma, & Harada, 1997)을 조용래와 김은정(2005)이 번역하여 타당화한 것이다. 이 척도는 총 31문항으로 7점 Likert형의 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 ~ 7점: 전적으로 그렇다)이다. 조용래와 김은정(2005)의 연구에서 내적 일치도는 .95였고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82였다.

### 한국판 사회적 상호작용불안 척도(Social Interaction Anxiety Scale, SIAS)

이 검사는 다양한 사회적 상호작용상황에서 경험하는 인지적, 정서적 및 행동적 불안증상의 정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Mattick과 Clarke(1998)이 개발한 검사로서 총 20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5점 Likert형의 척도에 평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김향숙(2001)이 우리나라 말로 번역한 19개 문항에다 조용래와 김은정(2005)이 번역한 1개 문항을 추가하여 총 20개 문항으로 구성된 한국판 검사를 사용하였다. 19개 문항으로 된 한국판 SIAS는 내적 일치도가 우수하고 수렴 및 변별 타당도가 양호하였다(김향숙, 2001). 본 연구에서 사용된 검사의 내적 일치도(Cronbach's  $\alpha$ )는 .92, 반분신뢰도는 .89였고, 교정된 문항-총점 상관계수의 범위는 .40 ~ .72였다(조용래, 김은정, 2005).

### 한국판 사회적 공포 척도(Social Phobia Scale, SPS)

이 검사는 다른 사람에 의해 실제로 관찰되

거나 그들의 관찰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경험하는 불안증상의 정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Mattick과 Clarke(1998)이 개발한 검사로서 총 20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5점 Likert형의 척도에 평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김향숙(2001)이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여 내적 일치도가 우수하고, 수렴 및 변별타당도가 양호하다고 보고한 한국판 SPS를 사용하였다.

**개인주의-집단주의 척도  
(Individualism-Collectivism Scale, INDCOL).**

이 척도는 개인의 개인중심성-집단중심성의 성향을 측정하기 위해 Singelis, Tarianidis, Buawauk과 Gelfand(1995)가 제작하고 김기범(1996)이 우리나라 대학생을 대상으로 표준화한 INDCOL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집단주의와 개인주의 성향을 다시 수직/수평으로 나누어 측정하도록 되어 있다. 여기서 수직적 유형은 불평등을 수용하고 위계 질서를 강조하는 반면, 수평적 유형은 평등과 동등성을 강조한다. 수직적 개인주의자(VI)는 경쟁적이며 남들을 이기는 것을 중시하고, 수평적 개인주의(HI)는 개인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중시한다. 반면, 수직적 집단주의(VO)는 집단과 가족을 개인보다 우선시하고, 수평적 집단주의(HC)는 평등한 동료들 사이의 동료애와 협동을 중시한다. 김기범(1996)의 연구에 따르면, VI의 내적 일치도는 .72, HI .81, VC .68, HC .75였다.

**상태-특성 분노표현 척도(State-Trait Anger Expression Inventory-Korean version: STAXI-K)**

Spielberger(1988)의 상태-특성 분노표현 척도를 전경구, 한덕웅, 이장호와 Spielberger(1997)

가 한국판으로 개발한 것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STAXI-K에서 상태분노를 제외하고 특성분노(10문항)와 분노표현의 세 가지 양상인 분노억제(8문항)과 분노표출(8문항) 및 분노통제(8문항) 하위척도를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리커트 형의 4점 척도상에서 평정되었다. 내적 합치도는 특성 분노 .82였으며, 분노표출, 분노억제, 분노통제는 각각 .73, .78, .79였다.

**분노표출태도 척도(Anger-Out Attitude Scale)**

서수균, 이훈진, 권석만(2004)이 개발한 분노표출에 대한 태도 척도로 타인의 부정적인 평가에 대한 두려움(10문항), 부정적인 대인관계 결과에 예상(9문항), 적극적인 분노표현 지지(10문항), 소극적인 분노표현 지지(7문항)라는 4개의 하위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이 문항들은 7점 척도 상에 평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각 하위척도들의 내적 합치도는 각각 .86, .86, .85, .79였다.

**결 과**

**가해염려 사회공포증상과 분노관련 변인들 및 개인주의-집단주의 성향간의 관계**

먼저, 세 가지 사회공포증 척도 점수들과 분노관련 변인 점수들, 수평적 및 수직적 개인주의-집단주의의 점수들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표 1에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분노관련 변인과 개인주의-집단주의 성향이 가해염려 사회공포증(TKS)과 관련된다는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특성 분노, 분노억제, 분노표출, 분노통제, 분노표출 태도, 수직적 및 수평적 개인주의-집단주의, 가해염

표 1. 각 측정도구들의 평균 및 표준편차

사회공포증	평균 (표준편차)	특성분노 표현척도	평균 (표준편차)	분노표출 태도척도	평균 (표준편차)	개인주의 집단주의	평균 (표준편차)
TKS	73.15 (29.64)	특성분노	20.12 (4.76)	부정적 평가두려움	39.33 (9.56)	VI	27.83 (5.84)
SIAS	25.47 (10.26)	분노억제	17.48 (3.97)	부정적 결과예상	41.15 (8.98)	HI	41.37 (6.23)
SPS	17.22 (12.66)	분노표출	14.89 (3.41)	적극적 분노표현지지	43.12 (7.93)	VC	38.26 (5.37)
		분노통제	21.11 (4.33)	소극적 분노표현지지	35.28 (5.65)	HC	39.19 (4.98)

주. N = 310. TKS = 가해염려 사회공포증 척도; SIAS = 사회적 상호작용불안척도; SPS = 사회적 공포척도; VI = 수직적 개인주의, HI = 수평적 개인주의, VC = 수직적 집단주의, HC = 수평적 집단주의.

려 사회공포증(TKS), 사회적 공포(SPI), 그리고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SIAS)간의 상관을 구하였다. 사회공포증 척도들 간의 상관(TKS와 SPS의 상관은 .67; TKS와 SIAS의 상관은 .61)이 있었으므로, 세 사회공포증 척도의 점수와 다른 변인들 간의 상관을 검토할 때, 각 변인들 간의 단순 상관 외에 부분 상관도 함께 구하였다. 세 사회공포증 점수와 다른 변인들 간의 단순 상관계수 그리고 두 사회공포증 점수간의 상관을 통제된 후의 부분 상관계수를 표 2에 제시하였다.

표 2를 살펴보면, 가해염려 사회공포증은 특히 분노 억제( $r = .41$ )와 중등도로 상관되어 있었고, 특성 분노( $r = .17$ ), 분노표출 태도 중 타인의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r = .32$ )과도 유의미하게 상관되어 있었다. 이 중 특성분노는 SIAS와 SPS의 수준을 둘 다 통제된 이후에는 상관이 유의미하지 않았으나, 분노억제( $partial\ r = .17$ )와 타인의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partial\ r = .22$ )은 SIAS와 SPS의 수준

을 둘 다 통제된 후에도 가해염려 사회공포증과 유의미한 부분 상관을 보였다. 또한 부분 상관에서 분노통제가 가해염려 사회공포증과 약한 부적 상관( $partial\ r = -.13$ )을 보였다. 이로 볼 때 가해염려 사회공포증과 관련해서 분노 변인들 중에서는 분노억제와 타인의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개인주의-집단주의 변인의 경우, 가해염려 사회공포증은 수평적 개인주의( $r = -.21$ )와 수평적 집단주의( $r = -.18$ )와 부적 상관이 있었다. SIAS와 SPS의 수준을 통제된 후에도 수평적 개인주의는 여전히 가해염려 사회공포증과 부적 부분 상관( $partial\ r = -.21$ )을 보였고 수평적 집단주의와는 약한 부적 부분 상관( $partial\ r = -.13$ )을 보였다. 이로 볼 때, 개인주의-집단주의 성향들중에는 수평적 개인주의가 적은 것이 가해염려 사회공포증의 중요한 변인임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SIAS와 SPS 수준의 영향을 통제된



표 2. TKS, SIAS, SPS와 각 변인들과의 단순 상관 및 부분 상관

변인	TKS		SIAS		SPS	
	단순상관	부분상관	단순상관	부분상관	단순상관	부분상관
특성분노	.17**	-.00	.23***	.08	.24***	.10
분노억제	.41***	.17**	.46***	.23***	.40***	.02
분노표출	.06	.00	.05	-.05	.11	.10
분노통제	-.04	-.13*	.14*	.18**	.05	-.02
FNE	.32***	.22***	.25***	.10	.21***	-.06
NE	.10	.05	.14*	.13*	.05	-.09
AAES	-.03	-.02	-.02	.01	-.03	-.02
PAES	-.13*	-.07	-.07	.04	-.12*	-.05
VI	.05	.07	-.01	-.01	-.01	-.01
HI	-.21***	-.21***	-.01	.18**	-.13*	-.10
VC	-.06	-.07	.02	.05	-.01	-.01
HC	-.18**	-.13*	.12*	-.02	-.12*	-.01

주. TKS = 가해염려 사회공포증척도; SIAS =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 척도; SPS = 사회공포증척도; FNE = 분노표출태도 척도 중 타인의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척도; NE = 분노표출태도 척도 중 부정적 결과예상 척도; AAES: 분노표출태도 척도 중 적극적 분노표출지지 척도; PAES = 분노표출태도 척도 중 소극적 분노표출지지 척도; VI = 수직적 개인주의; HI = 수평적 개인주의; VC = 수직적 집단주의; HC = 수평적 집단주의.

\*  $p < .05$ . \*\*  $p < .01$ . \*\*\* $p < .001$ .

후에 분노관련 변인들과 개인주의-집단주의 성향이 순수하게 가해염려 사회공포증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1단계에서는 DSM-IV(1994)에서 정의된 사회공포증 수준을 통제하기 위해, SPS와 SIAS를 투입하였다. 2단계에서는 분노관련 변인인 특성 분노, 분노 억제, 분노 표출, 분노 통제 및 분노표출에 대한 부정적 태도 중 하나인 타인의 부정적인 평가에 대한 두려움을 투입하였다. 이중 분노표출태도 척도의 경우, 타인의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하위척도만을 분석에 포함시켰다. 그 이유는 이 하위

척도를 제외한 다른 세 개의 하위척도들은 사회공포증 척도들과 상관이 없거나 미미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에서 제외하였다. 3단계에서는 개인주의-집단주의 성향인 수평적 개인주의, 수직적 개인주의, 수평적 집단주의 및 수직적 집단주의를 투입하고 그 설명 변량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표 3에 따르면, 가해염려 사회공포증을 종속변인으로 하였을 때, 두 사회공포증 수준이 가해염려 사회공포증 전체변량의 47.2%를 유의미하게 설명해 주었다( $F(2, 307) = 137.36, p < .001$ ). 또한 분노관련 변인이 5.2%를 추가적으로 설명하였고,  $F(7, 302) =$

표 3. SIAS와 SPS를 통제한 가해염려 사회공포증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

예측변인	B	$\beta$	t	R <sup>2</sup>	$\Delta R^2$	F
SIAS	8.19	.25	4.11***	.472	.472	137.36***
SPS	12.61	.48	7.80***			
특성분노	-3.01	-.09	-1.71	.524	.052	47.52***
분노억제	.56	.13	2.80**			
분노표출	-.19	-.04	-.80			
분노통제	-.51	-.13	-3.06**			
FNE	.28	.16	3.74***			
VI	-.26	-.01	-.24	.543	.019	32.15***
HI	-2.75	-.13	-2.96**			
VC	-.17	-.01	-.14			
HC	-1.31	-.05	-.97			

주. TKS = 가해염려 사회공포증척도; SIAS =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 척도; FNE = 분노표출태도 척도 중 타인의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척도; VI = 수직적 개인주의; HI = 수평적 개인주의; VC = 수직적 집단주의; HC = 수평적 집단주의.

\*\*  $p < .01$ . \*\*\*  $p < .001$ .

47.52,  $p < .001$ , 수직적 및 수평적 개인주의-집단주의 성향이 1.9%를 추가적으로 설명해주었다,  $F(11, 298) = 32.15$ ,  $p < .001$ .

두 사회공포증 수준의 영향을 통제했음에도 불구하고, 분노관련 변인들 중 분노억제,  $\beta = .13$ ,  $t(302) = 2.80$ ,  $p < .01$ , 분노통제,  $\beta = -.13$ ,  $t(302) = -3.06$ ,  $p < .01$ , 분노표출에 대한 부정적 태도 중 하나인 타인의 부정적인 평가에 대한 두려움 변인이 유의미하였다,  $\beta = .16$ ,  $t(302) = 3.74$ ,  $p < .001$ . 이로써 특성 분노를 제외한 분노 관련 변인들에 대한 가설이 지지되었다. 또한 수직적 및 수평적 개인주의-집단주의 성향의 변인들 중에는 수평적 개인주의 변인이 유의미하였다,  $\beta = -.13$ ,  $t(298) = -2.96$ ,  $p < .01$ . 개인주의-집단주의 성향과 관련해서는, 개인주의 성향에 대한 가설만 지지되었다. 이로 볼

때, 분노를 잘 통제하지 못하고 많이 억제하며, 분노를 표현했을 때 타인들로부터 부정적인 평가를 받을까봐 두려워하는 경향이 강하고, 개인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중시하는 경향이 약할수록, 가해염려 사회공포증상의 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추가적으로, 분노관련 변인들 각각의 가해염려 사회공포증상에 대한 고유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분노관련 변인인 특성 분노, 분노억제, 분노 표출, 분노 통제 및 분노표출에 대한 부정적 태도 중 하나인 타인의 부정적인 평가에 대한 두려움만을 예측 변인으로 가해염려 사회공포증상을 종속 변인으로 하여, 동시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4에 따르면, 분노관련 변인이 가해염려 사회공포증상의 변량의 21.5%를 유의하게 설명해 주었다,  $F(5,$

표 4. 가해염려 사회공포증(TKS)에 대한 동시적 회귀분석

예측변인	B	$\beta$	t	R <sup>2</sup>	F
특성분노	-.60	-.02	-.27		
분노억제	1.53	.37	6.42***		
분노표출	-.22	-.05	-.71	.215	16.63***
분노통제	-.36	-.09	-1.69		
FNE	.37	.21	3.86***		
VI	-.84	-.04	-.15		
HI	-4.11	-.19	-3.29**	.069	5.62***
VC	1.79	.07	1.03		
HC	-5.06	-.19	-2.71**		

주. FNE = 분노표출태도 척도 중 타인의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척도; VI = 수평적 개인주의; HI = 수직적 개인주의; VC = 수평적 집단주의; HC = 수직적 집단주의.

\*  $p < .05$ , \*\* $p < .01$ , \*\*\* $p < .001$ .

304) = 16.63,  $p < .001$ . 분노관련 변인들 중 분노억제,  $\beta = .37$ ,  $t(304) = 6.42$ ,  $p < .001$ ,와 타인의 부정적인 평가에 대한 두려움 변인이 유의미하였다,  $\beta = .21$ ,  $t(304) = 3.86$ ,  $p < .001$ . 즉 분노를 많이 억제할수록, 그리고 분노표출시 나타날 수 있는 타인의 부정적인 평가에 대해 많이 두려워할수록 가해염려 사회공포증상의 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직적 및 수평적 개인주의-집단주의 변인들 각각의 가해염려 사회공포증상에 대한 고유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수직적 개인주의, 수평적 개인주의, 수직적 집단주의, 수평적 집단주의만을 예측 변인으로 가해염려 사회공포증을 종속 변인으로 하여, 동시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4에 따르면, 수직적 및 수평적 개인주의-집단주의 성향이 가해염려 사회공포증상의 전체 변량의 약 7%를 설명하였다,  $F(4, 305) = 5.62$ ,  $p < .001$ . 수직적 및 수평적 개인주의-집단주의 성향의 변인들 중에는 수평적

개인주의 성향,  $\beta = -.19$ ,  $t(304) = -3.29$ ,  $p < .01$ ,과 수평적 집단주의 성향이 유의미하였다,  $\beta = -.19$ ,  $t(304) = -2.71$ ,  $p < .01$ . 즉 개인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덜 중시할수록 그리고 평등한 동료들 사이의 동료애와 협동을 덜 중시할수록 가해염려 사회공포증상의 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증상 또는 사회적 공포증상과 분노관련 변인들 및 개인주의-집단주의 성향간의 관계

가해염려 사회공포증과 비교되는 DSM-IV (1994)에서 정의된 두 사회공포증상들과 분노관련 변인들 및 개인주의-집단주의 성향과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TKS와 SPS 수준의 영향을 통제한 후에 분노관련 변인들과 개인주의-집단주의 성향이 순수하게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위계적 회

표 5. SPS와 TKS를 통제한, SIAS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

예측변인	B	$\beta$	t	R <sup>2</sup>	$\Delta R^2$	F
SPS	.49	.60	11.95***	.568	.568	202.06***
TKS	.01	.21	4.11***			
특성분노	.05	.04	.92	.603	.035	65.64***
분노억제	.02	.14	3.22**			
분노표출	-.01	-.03	-.71			
분노통제	.01	.10	2.49*			
FNE	.00	.03	.66			
VI	.03	.04	1.01			
HI	.07	.11	2.64**			
VC	.04	.05	1.03	.614	.011	43.09***
HC	-.04	-.05	-1.15			

주. SPS = 사회공포증척도; TKS = 가해염려 사회공포증척도; FNE = 분노표출태도 척도 중 타인의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척도; VI = 수직적 개인주의; HI = 수평적 개인주의; VC = 수직적 집단주의; HC = 수평적 집단주의.

\*  $p < .05$ . \*\*  $p < .01$ . \*\*\*  $p < .001$ .

귀분석을 실시하였다. 1단계에서는 DSM-IV (1994)에서 정의된 사회공포증 수준을 통제하기 위해, TKS와 SPS를 투입하였다. 2단계에서는 분노관련 변인인 특성 분노, 분노 억제, 분노 표출, 분노 통제 및 분노표출에 대한 부정적 태도 중 하나인 타인의 부정적인 평가에 대한 두려움을 투입하였다. 3단계에서는 개인주의-집단주의 성향인 수평적 개인주의, 수직적 개인주의, 수평적 집단주의 및 수직적 집단주의를 투입하고 그 설명 변량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표 5에서 보듯이, 분노억제,  $\beta = .14$ ,  $t(302) = 3.22$ ,  $p < .01$ , 분노통제,  $\beta = .10$ ,  $t(302) = 2.49$ ,  $p < .05$ , 수평적 개인주의,  $\beta = .11$ ,  $t(298) = 2.64$ ,  $p < .01$ 가 SIAS의 변량의 61.4%를 유의미하게 설명하였다,  $F(11, 298) = 43.09$   $p <$

.001. 가해염려 사회공포증상의 경우 분노를 잘 통제하지 못하고 많이 억제하며 수평적 개인주의 성향이 약할수록 가해염려 사회공포증상의 수준이 더 높은 반면, SIAS의 경우 분노를 잘 통제하면서 많이 억제할수록 그리고 수평적 개인주의 성향이 강할수록,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의 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반면, 사회적 공포증상(SPS)과 분노관련 변인 및 수평적, 수직적 개인주의-집단주의 변인과의 관계의 경우, TKS와 SIAS의 수준을 통제하여 SPS에 대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한 결과 TKS와 SIAS만이 SPS의 변량의 62%를 설명하였고,  $F(2, 307) = 250.39$   $p < .001$ , 추가적으로 유의미한 설명 변인은 없었다. SPS의 위계적 회귀분석의 결과를 표 6에 제시하였다.

표 6. SIAS와 TKS를 통제한, SPS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

예측변인	B	$\beta$	t	R <sup>2</sup>	$\Delta R^2$	F
SIAS	.65	.53	7.80***	.620	.620	250.39***
TKS	.01	.35	11.95***			
특성분노	.08	.06	1.39	.628	.008	72.85***
분노억제	.00	.00	.02			
분노표출	.01	.04	.91			
분노통제	.00	.02	.47			
FNE	-.00	-.06	-1.58			
VI	-.02	-.03	-.66			
HI	-.06	-.08	-1.93			
VC	-.03	-.03	-.60	.633	.005	46.74***
HC	.03	.03	.67			

주. TKS = 가해염려 사회공포증척도; SIAS =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 척도; FNE = 분노표출태도 척도 중 타인의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척도; VI = 수직적 개인주의; HI = 수평적 개인주의; VC = 수직적 집단주의; HC = 수평적 집단주의.

\*\*\* $p < .001$ .

### 논 의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와 일본에서 주로 관찰되어 일종의 문화특수증후군으로 알려진 가해염려 사회공포증상의 본질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하여, 가해염려 사회공포증상과 분노관련 변인들 및 개인주의-집단주의 성향과의 관계를 살펴보았으며, 이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먼저, 가해염려 사회공포증상에 대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분노관련 변인들 중, 분노통제, 분노억제 및 분노표출 태도 중 타인에 대한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 가해염려 사회공포증상에 유의미하게 기여하였다. 즉 분노를 잘 통제하지 못하고, 분노를 많이 억제하며, 분노를 표출시

타인의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 많을수록, 가해염려 사회공포증상을 더 많이 느끼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수평적 개인주의 성향이 약할수록 가해염려 사회공포증상이 더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기술한 변인들은 사회적 상호작용불안과 사회적 공포증상 수준의 영향을 넘어서서, 가해염려 사회공포증상에 유의미하게 기여하였다. 이와 대비되게, 분노를 잘 통제할수록, 분노를 많이 억제할수록, 그리고 수평적 개인주의 성향이 강할수록, 사회적 상호작용불안증상의 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사회적 공포증상수준에 대해서는 분노관련 변인들과 개인주의-집단주의 성향 중 어느 변인도 유의미하게 기여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가해염려 사회공포증상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에 관해 좀 더 살펴보면, 두 사회공포증 수준을 통제한 후에는, 분노억제, 분노통제, 분노표출시 타인의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 가해염려 사회공포증상에 각각 유의미하게 기여하였다. 분노 억제 변인은 DSM-IV(1994)에서 정의한 사회공포증의 연구에서도 중요한 변인이었다(Erwin et al., 2003).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두 사회공포증 수준을 통제한 후에도, 여전히 분노억제가 사회공포증상을 설명하였다. 또한 분노조절을 잘 하지 못하는 것이 가해염려 사회공포증상을 설명하였다. 뿐만 아니라 분노 표출시 타인의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 많을수록 가해염려 사회공포증을 많이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분노를 표현했을 때 타인에 대한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을 많이 가지고 있으며, 분노를 잘 통제하지 못하고 억제하는 사람일수록 가해염려 사회공포증상을 더 많이 경험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분노억제 경향이 가해염려 사회공포증상과 관련이 있다는 결과는 가해공포증이 있는 사람들의 감정 표현 방식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 가해공포증이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불편하게 만드는 것을 염려하므로, 직접적인 부정적인 감정표출을 억제할 가능성이 많다. 특히 가해염려형 사회공포증상은 “다른 사람들을 화나게 하지 않았나” 등과 같이 분노의 표현에 관련된 염려가 많다. 따라서 가해염려형 사회공포증이 있는 사람들은 부정적인 감정 표현 중에서도 분노를 많이 억제할 가능성이 많다. 여기에서 가해염려 사회공포증이 있는 사람은 분노를 적절히 통제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적절히 처리되지

못하고 억제되어지는 분노 감정으로 인해, ‘내가 다른 사람들을 화나게 하지 않을까’하는 투사가 생겨나게 되고 이것이 가해염려 사회공포증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가해염려 사회공포증상과 분노표출 태도 중 타인의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과의 관계는 분노의 억제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 이런 결과에서 추론해 볼 때, 가해염려 사회공포증이 있는 사람의 경우 분노의 표현은 부정적 평가의 두려움을 일으킬 수 있고 불안을 감소시키기 위해 분노는 억제되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런 악순환 속에서 가해염려 사회공포증이 있는 사람들은 분노를 경험하거나 표현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질 수 있다.

또한 서론에서 기술했듯이, 가해염려 사회공포증이 있는 사람들은 사회적 상황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을 염려하고, 단순형 사회공포증이 있는 사람들은 사회적 상황에서 자신이 당황스럽고 수치스러울까봐 두려워 한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가해염려 사회공포증 있는 사람들이 상호의존적인 자기개념의 특성을 더 많이 가지고 있는 반면, 단순형 사회공포증이 있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개인주의적인 자기개념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본 연구 결과, 개인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중시하는 수평적 개인주의 성향이 약할수록 가해염려 사회공포증상을 가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결과는 개인주의적 자기개념을 덜 가질수록, 가해염려 사회공포증을 가지는 것으로 드러난 Kleinknecht 등(1997)의 연구 결과와 일치된다. 본 연구에서는 Kleinknecht 등(1997)에서 사용한 척도를 좀 더 세분화한, 수평적 및 수직적 개인주의-집단주의 척도를 사용하여 개인주의 척도 중에서도 수평적 개인주의가 부족할수록, 즉 개인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덜 중시할수록 가해염려 사회공포증을 많이 가진다는 것을 밝혔다.

또한 이 결과는 Cross(1995)의 연구와도 관련이 있다. 그는 미국에서 대학원의 첫 해를 보내는 동아시아 학생들을 대상으로 개인적인 자기개념이 직접적인 대처 전략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과 관련이 있고, 이런 대처 전략이 더 낮은 스트레스를 보고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밝혔다. 역으로, 상호의존적 자기개념을 가진 동아시아 학생들은 더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하였다. 반면, 미국 학생의 경우, 자기개념과 스트레스 간에 아무런 관계도 없었다. 따라서, 새로운 스트레스 상황에서 개인적인 자기개념이 사회적 스트레스에 대한 완충작용을 할 있다. 이런 결과를 볼 때, 현대사회의 개인주의 성향에 덜 동화되는 사람들이 가해염려 사회공포증상을 더 가지는 것을 알 수 있다. 개인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중시하는 현대사회의 수평적 개인주의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가해염려 사회공포증상을 가지는 것으로 생각해볼 수 있다.

문화적으로 특수한 사회공포증인 가해염려 사회공포증은 특정한 문화의 사회적 기대 때문에 나타날 수 있다. 가해염려 사회공포증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가 다른 사람들을 화나게 하거나 당황하게 할까봐 두려워한다. 반면, DSM-IV(1994)에서 정의된 사회공포증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이 당황할까봐 두려워한다. 사회화 과정이 개인의 자기개념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두 사회공포증간의 차이는 문화에 따른 사회화의 차이일 수 있다.

또한 단계적 회귀분석 결과에 따르면, 가해염려 사회공포증은 수평적 집단주의가 적은 것과도 관련이 있었다. 연구자는 가해염려 사회공포증이 집단주의와 정적 상관관계를 보일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이런 예상치 못한 결과는 사회공포증과 내현적 자기애와의 관련성을 통해 설명해 볼 수 있다. 많은 연구들에서 사회공포증과 내현적 자기애와의 관련성을 확인하였다(Shurman, 2000; 권은미, 2006; 한혜림, 2004). 내현적 자기애가 있는 사람들은 인정 욕구와 거대자기 환상을 가진다. 인정 욕구와 거대자기 환상은 잘나보이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강한 욕구이다. 또한 Schneider와 Leary (1982)가 주장한 사회공포증에 대한 자기제시 이론에서도 높은 자기제시 동기를 강조하고 있다. 즉 사회공포증이 있는 사람들은 타인에게 호의적인 인상을 전달하고자 하는 강한 동기를 가지고 있다. 이런 것들을 고려해 볼 때, 사회공포증이 있는 사람들은 동료애와 협동보다는 자기의 우월성과 경쟁에 더 집착할 수 있다. 따라서 특히 가해염려 사회공포증이 있는 사람들이 동료들과의 협동보다는 자기우월성을 더 중시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을 가능성이 있다. 향후 연구를 통해 이런 점들을 재검증해볼 필요가 있다.

수평적 개인주의 및 수평적 집단주의 결과를 정리해보면, 가해염려 사회공포증이 있는 사람들은 개인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덜 중시하고 평등한 동료들과의 동료애와 협동도 덜 중시하는 경향이 있었다. 따라서 이들은 개인주의나 집단주의 어느 것에 대해서도 명확한 자기개념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Campbell (1990)은 불명확한 자기개념을 가진 사람이 외적 자기관련 자극에 더 의존하고, 민감하며, 영향받기 쉽다고 보았다. Arkin(1987)은 수줍은 사람들이 “만성적인 자기의심”으로 특징지워진다고 주장하였으며, Clark과 Wells(1995)는 “불안정한 자기도식”이 사회공포증이 있는 사람의 전형적인 특징이라고 보았다. 이런 점들

을 고려해 볼 때, 가해염려 사회공포증이 있는 사람들은 사회적 피드백에 더 많이 영향받으며, 쉽게 취약해질 가능성이 있다.

본 결과에서는 가해염려 사회공포증이 집단과 가족을 우선시하는 수직적 집단주의와 강하게 관련되지 않았다. 이 결과는 유사한 척도를 사용한 Kleinknecht 등(1997)의 연구와 일관된 결과이다. Kleinknecht 등(1997)의 연구에서도 수직적 집단주의와 가해염려 사회공포증간의 상관관계가 유의미하지 않았다. 첫째, 가해염려 사회공포증은 집단주의 성향이 강한 것보다는 개인주의 성향이 약한 것과 관련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을 수 있다. 이 두 연구들 간에 서로 일치되게, 가해염려 사회공포증상은 개인주의 성향이 약한 것과 관련이 있었다. 둘째, 이런 결과는 집단주의를 측정하는 척도의 문제 때문에 나왔을 수 있다. 하지만, 유사하지만 다른 척도를 사용한 두 연구에서 일관되게 이 관계가 유의미하지 않았던 것을 보면, 그럴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셋째, 이 결과는 연구 표본의 문제일 수 있다. 만약 임상집단을 사용한다면,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임상 집단을 사용하여 이 관계를 다시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

반면, 사회적 상호작용불안증상과 다른 변인들간의 관계를 보면, 다른 사회공포증상들을 통제한 회귀분석 결과에서 분노억제, 분노통제, 수평적 개인주의가 사회적 상호작용불안증상의 변량을 유의미하게 설명하였다. 가해염려 사회공포증의 경우 분노통제를 잘하지 못하고 억제하며 수평적 개인주의 성향이 약할수록, 가해염려 사회공포증상을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드러난 반면, 사회적 상호작용불안증상의 경우 분노를 잘 통제하면서 분노

를 많이 억제할수록 그리고 수평적 개인주의 성향을 많이 가지고 있을수록 사회적 상호작용불안증상을 더 많이 느끼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결과는 사회적 상호작용불안증상이 분노를 억제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잘 통제하는 이중적 측면과 관련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반면, 분노를 억제만 하지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는 가해염려 사회공포증상의 경우 분노 처리에 더 어려움이 있어서 적절히 해소되지 못하는 분노감이 가해염려 사회공포증상으로 나타난 것으로 추론해 볼 수 있다. 이것은 “다른 사람들을 화나게 하지 않았나” 등과 같이 가해염려 사회공포증에 분노감과 관련된 염려등이 많이 내포되어 있는 것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 또한 가해염려 사회공포증상과 수평적 개인주의 성향이 부적 상관을 보인 반면, 사회적 상호작용불안증상과 수평적 개인주의 성향은 정적 상관을 보였다. 이것은 가해염려 사회공포증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가 다른 사람들을 화나게 하거나 당황하게 할까봐 두려워하는 반면, DSM-IV(1994)에서 정의된 사회공포증을 가진 사람은 자신이 당황할까봐 두려워한다는 정의적 특성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 즉 가해염려 사회공포증의 경우 덜 개인주의적인 자기에 초점이 맞추어진 반면, 사회적 상호작용불안증상의 경우 개인주의적 자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서 이런 결과가 나왔을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반면, 사회적 공포증상(SPS)과 분노관련 변인 및 수평적, 수직적 개인주의-집단주의 변인과의 부분 상관의 경우 모두 유의미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으며 회귀분석 결과에서도 유의미한 예언 변인은 없었다. SPS에서 측정하는 사회공포증은 DSM-IV(1994)에서 정의된 사회공포증상 중 수행불안을 특징적으로 측정한다.



따라서 이 결과는 수행불안이 분노관련 변인 및 수평적, 수직적 개인주의-집단주의 변인과의 관련이 적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에서는 문화특수증후군으로 알려진 가해염려 사회공포증상과 분노관련 변인들, 개인주의-집단주의 성향과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사회공포증의 표현 양상에 있어서 많은 요인들이 관련될 수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동아시아권에 특수하게 나타나는 가해염려 사회공포증과 관련된 변인들을 규명함으로써, 가해염려 공포증의 특징을 밝힐 수 있었다. 사회공포증의 증상들은 특정 문화에 따라 생겨나고 달라질 수 있다. 이 연구를 통해서 가해염려 사회공포증이 DSM-IV(1994)에서 정의된 사회공포증과 다른 문화특정적인 장애라는 것이 다시 한 번 확인되었다. 따라서 이 연구를 바탕으로 가해염려 사회공포증과 DSM-IV(1994)에서 정의된 사회공포증에 대한 차이점과 공통점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향후 가해염려 사회공포증의 병리적 원인과 기제 및 주요 특징에 대한 연구가 더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가해염려 사회공포증이 DSM-IV(1994)에서 정의된 사회공포증과는 다른 특징들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들을 치료할 때에는 기존의 사회공포증에 대한 치료와는 다른 치료적 측면을 추가로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가해염려 사회공포증상이 기존의 인지행동집단치료에 잘 반응하는 지를 검증한 연구는 국내에 1편 나와있다(조용래, 김은정, 2005). 이 연구에 의하면, DSM-IV(1994)의 사회공포증 진단기준을 충족시키는 대학생 11명을 대상으로 10회기로 구성된 인지행동집단치료를 실시한 결과, 사회공포증 내담자들의 가해염려증상은 치료 전(평균 = 110점, 표준편차 = 21.20점)에 비해

치료 종결 후(평균 = 61.45점, 표준편차 = 18.66점)에 유의미하게 완화되었으며,  $t(10) = 5.66, p < .001$ , 그 효과크기( $ES = 2.43$ )가 매우 큰 것으로 밝혀졌다. 이 결과는 가해염려 사회공포증상이 기존의 인지행동치료에 의해 효과적으로 개선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가해염려 공포증에 대한 치료연구에서는, 본 연구를 통해 밝혀진 분노 억제 및 통제 문제, 분노표출태도 중 타인의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수평적 개인주의 성향의 부족 등에 초점을 맞춘 특정적인 치료 프로그램(예: 분노감의 자각과 수용 및 표현, 분노표출에 대한 자동적 사고에 대한 파악 및 수정에 초점을 둔 기법)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방향을 논의하겠다. 첫째, 본 연구는 연구 대상이 대학생 집단에 국한되어 있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임상 집단들을 대상으로 본 연구의 결과를 반복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비교문화 연구를 시행하지 못하였다. 가해염려 사회공포증이 문화특수증후군의 하나로 간주되고 있는 만큼, 본 연구의 결과가 문화적 특징에 기인한다고 좀 더 분명한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동아시아권의 여러 국가들과 서구 국가들 간에 가해염려 사회공포증과 DSM-IV(1994)에서 정의된 사회공포증의 특징들을 비교해볼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권은미 (2006). 내현적 자기애가 사회공포증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자기효능감의 매개 효과를 중심으로. 아주대학교 일반대학

- 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기범 (1996). 대인관계 속에서의 도덕성과 내집단-외집단 구별: 문화 비교 분석 연구. 중앙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향숙 (2001). 사회공포증 하위 유형의 기억편향. 서울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서수균, 이훈진, 권석만 (2004). 분노표출/분노억제 태도 척도의 개발과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3, 521-540.
- 오강섭, 허묘연, 이시형 (1999). 대인불안과 사회문화적 요인의 상관관계. 신경정신의학, 38, 64-76.
- 이시형, 이성희, 김갑중 (1986). 사회공포증 집단치료- 치료 경과 및 결과. 신경정신의학, 24, 618-627.
- 이시형, 김형태, 김성희 (1987). 사회공포증의 유형별 임상고찰. 신경정신의학, 26, 517-524.
- 이시형, 신영철, 오강섭 (1994). 사회공포증에 관한 10년간의 임상연구. 신경정신의학, 33, 305-312.
- 이시형, 오강섭, 이성희 (1991). 사회공포증의 임상고찰(4)- 가해의식을 동반한 아형. 신경정신의학, 30, 1004-1013.
- 이시형, 정광설 (1984). 사회공포증에 관한 임상적 고찰(1). 신경정신의학, 33, 111-118.
- 조용래, 김은정 (2005). 가해염려를 동반한 사회공포증: 한국한 TKS의 신뢰도와 타당도.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4, 521-540.
- 한혜림 (2004). 자기애가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 수치심 경향성을 매개 변인으로.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Alden, L. E., & Wallace, S. T. (1991). Social standards and social withdrawal.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15, 85-100.
-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1994).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4th ed.). Washington, DC: Author.
- Arkin, D. M. (1987). Shyness and self-presentation. In K. Yardley & T. Honess(Eds.), *Self and identity: Psychosocial perspectives*. Chichester: Wiley.
- Campbell, J. D. (1990). Self-esteem and clarity of self-concep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9, 538-549.
- Clark, D. M., & Wells, A. (1995). A Model of Social Phobia. In R. G. Heimberg, M. R. Liebowitz, D. A. Hope, & F. R. Schneier (Eds.), *Social Phobia: Diagnosis, assessment, and treatment*. New York: Guildford Press.
- Erwin, B. G., Heimberg, R. G., Schneier, F. R., & Liebowitz, M. R. (2003). *Behaviour Therapy*, 34, 331-350.
- Fitzgibbons, L., Franklin, M. E., Watlington, C., & Foa, E. B. (1997, November). *Assessment of anger in generalized social phobia*. Poster presented at the 13th annual convention of the Association for Advancement of Behavior Therapy, Miami, FL.
- Horowitz, L. M. Rosenbergh, S. E., Bear, B. A., Ureno, G., & Villansenor, V. S. (1988). Inventory of Interpersonal Problem: Psychometric properties and clinical application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6, 885-892.
- Kachin, K. E., Neaman, M. G., & Pincus, A. L. (2001). An interpersonal problem approach to the division of social phobia subtypes. *Behaviour Therapy*, 32, 479-501.

- Kim, U., Triandis, H. C., Kagisticibasi, C., Choi, S.-C., & Yoon, G. (Eds.). (1994).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Theory, methods, and applications*. Thousand Oaks, CA: Sage Publications.
- Kimayer, L. (1991). The place of culture in psychiatric nosology: Taijin kyofusho and DSM-III-R. *Journal of Nervous and Mental Disease*, 179, 19-28.
- Kleinknecht, R. A., Dinnel, D. L., Kleinknecht, E. E., Hiruma, N., & Harada, N. (1997). Cultural factors in social anxiety: A comparison of social phobia symptoms and Taijin Kyofusho. *Journal of Anxiety Disorders*, 11, 157-177.
- Kleinknecht, R. A., Dinnel, D. L., Tanouye-Wilson, S., & Lonner, W. J. (1994). Cultural variation in social anxiety and phobia: A study of Taijin Kyofusho. *The Behavior Therapist*, 17, 175-178.
- Leary, M. R. (1983). A brief version of the Fear of Negative Evaluation Scale.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9, 371-375.
- Leary, M. R., Kowalski, R. M., & Campbell, C. D. (1988). Self-presentation concerns and social anxiety: The role of generalized impression expectancies.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22, 308-321.
- Markus, H. R., & Kitayama, S. (1991). Culture and the self: Implications for cognition, emotion, and motivation. *Psychological Review*, 98, 224-253.
- Mattick, R. P., & Clarke, J. C. (1998).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measures of social phobia scrutiny fear and social interaction anxiety.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36, 455-470.
- Meier, V. J., Hope, D. A., Weilage, M., Elting, D., & Laguna, L. (1995, November). Anger and social phobia: Its expression and relation to treatment outcome. Paper presented at the 29th annual convention of the Association for Advancement of Behavior Therapy, Washington, DC.
- Schneider, F. R., & Leary, M. R. (1982). Social anxiety and self-presentaion: A conceptualization and model. *Psychological Bulletin*, 92, 641-669.
- Singelis, T. M. (1994). The measurement of independent and interdependent self-construal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ical Behavior*, 20, 580-591.
- Singelis, T. M., Trandis, H. C., Bhawuk, D. D., & Gelfand, M. (1995). Horizontal and vertical dimensions of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A theoretical and measurement refinement. *Cross-Cultural Research*, 29, 240-275.
- Spielberger, C. D. (1988). *Manual for the State-Trait Anger Expression Inventory*. Odessa, FL: Psychological Assessment Resources.
- Takahashi, T. (1989). Social phobia syndrome in Japan. *Comprehensive Psychiatry*, 30, 45-52.
- Turner, S. M., Beidel, D. C., & Townsley, R. M. (1992). Social phobia: A comparison of specific and generalized subtypes and avoidant personality disorder.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1, 326-331.
- 원고접수일 : 2008. 5. 13.  
수정원고접수일 : 2008. 6. 24  
게재결정일 : 2008. 7. 3.

## **The Relationship of Social Phobia with the Concern for Offending Others, Anger-related variables, and Individualism-Collectivism**

**Eun Jung Kim**

Department of Psychology Ajou University

**Yongrae Cho**

Department of Psychology Hallym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d the relationship of social phobia symptoms with concern for offending others, anger-related variables, and individualism-collectivism. For predicting social phobia symptoms with the concern for offending others, we used hierarchical regression with the level of Social Interaction Anxiety symptoms (SIAS) and Social Phobia symptoms (SPS) in the first step, and the other predictors were used in the subsequent steps.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es revealed that anger inhibition, anger control, fear of negative evaluation from others, and a low level of horizontal individualism predicted the variance of social phobia symptoms with the concern for offending others. On the contrary, hierarchical regression for SIAS indicated that anger inhibition, anger control, and a high level of horizontal individualism predicted the variance of SIAS. Hierarchical regression for SPS indicated that the anger-related variables, and individualism-collectivism didn't predict the variance of SPS. These findings suggest that the culture specific variables may explain social phobia symptoms with the concern for offending others. Finally, the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the present study are discussed.

*Key words* : social phobia symptoms with the concern for offending others, anger-related variables, individualism-collectivism